

협업팀·시설개선...사망자 40% 줄었다

교통사고 줄임시다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하> 광주시 예방 대책

최근 2년간(2017~2018년 9월) 광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37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에만 51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광주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 초부터 자치구, 경찰 등과 함께 대대적인 교통사고 합동단속, 교통사고 원인 조사 및 예방 대책을 추진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를 낮추기 위해선 자치단체의 대책 마련과 함께 운전자 스스로가 교통법규 위반·난폭·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는 교통안전문화 정착이 우선돼

86명→51명 감소율 전국 1위 상습 사고 지역 중앙분리대 설치 스쿨존 '광주형 표준모델' 도입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 도전

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서 올해 9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을 집계한 결과, 전국 사망자 수는 지난해(3031명)보다 8.5% 감소한 2773명이었다.

지역별 감소율은 광주(-40.7%)가 가장 높았으며 강원(-21.1%), 제주(-16.1%), 경기(-15.4%), 전북(-13.1%) 순이었다. 울산(32.6%), 대전(18.9%), 인천(7.1%), 충북(0.6%)은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올해 보

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명으로 지난해 52명보다 22명이나 줄었다. 이 같은 성과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광주시의 숨은 노력이 큰 힘이 됐다. 광주시는 올해 초부터 자치구, 경찰, 교육청 등 교통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팀을 구성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이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광주시는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58%에 달하자 경찰청 분석자료를 활용해 교통사고가 잦은 20여 곳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시설 정비에 나섰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 '광주형 표준모델'을 도입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집중 보강했다. '광주형 표준모델'은 광주시가 지난 2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특성에 맞춰 도입한 모델로 ▲노란색 신호등 ▲고원식 횡단보도(인도와 횡단보도 높이를 맞춰 이동 약자를 배려한 횡단보도) ▲운전자 시인성(視認性) 향상을 위한 미끄럼방지(칼라) 포장 및 노면표시 ▲아간 시야 향상을 위한 발광형 표지판 및 보행자 울타리 설치 등이다.

광주시는 중앙초등학교와 효동초등학교 등 2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현재 16개 초등학교에 광주형 표준모델을 마련했으며, 156개 모든 학교에 도입할 예정이다.

김준영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2020년까지 광주지역 156개 초등학교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설치할 예정"이라면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다육이와 함께하는 원예 치유 14일 광주시 평동 농업기술센터 자연테마 식물원에서 원예치유프로그램 '다육이와 함께하는 미니 정원만들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육이를 화분에 심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문 총장 음주운전범죄 엄격한 법집행 주문

"민생범죄 대응 역량 강화해야" "변화에 공감"...검찰개혁 강조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큰 논란이 된 음주운전 교통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주문하고 나섰다.

문 총장은 14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간담회'에서 "강력범죄나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법집행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검찰의 업무처리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또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사법 전분야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면서, 최근 가동된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검

찰이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문 총장은 이어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크고, 검찰 구성원도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공격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특히 기소 후에도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총장은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검사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선 청 간부들은 소속 검사들에 대한 적절한 평정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촉촉한 그물코로 치어까지 싹쓸이

목포해경 불법조업 申어선 나포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된 어구보다 촉촉한 어구를 사용,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14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 10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87km(어업협정선 내측 13km) 해상에서 중국선적 149t 유자망 어선 A호를 망목 규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A호는 그물코 규정(50mm)보다 작은 40mm 그물을 사용해 조기 57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호를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한 뒤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했다. 또 담보금 등도 부과할 방침이다.

목포해경은 올 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38척을 나포해 18억9000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어린이집·유치원 10m이내 금연구역

위반땐 과태료 10만원

오는 12월 31일부터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연남뉴스

"교장 남편 친인척 기간제 채용"...나주 모 중학교 채용비리 의혹

교사들이 공모교장 근무태만 의혹 등 제기...당국 진상조사 나서

나주의 한 중학교 교사들이 공모교장으로 올 초 부임한 50대 여교장에게 기간제 근무자 채용비리, 근무태만 의혹을 제기하자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4일 나주 모 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교사들은 최근 교장 A(여)씨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진정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다.

교사들은 "지난 7월 행정실 계약직(시설 담당) 직원 1명을 채용하는데 지원자들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아 2차 공고를 냈다"며 "결국 1차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가 합격했다"고 말했다. 합격자는 교장 남편의 친척으로 7월 말부터 근무하

다가 최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장은 지난 10월 기간제 상담교사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뽑히도록 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또 "(A씨가) 지난 3월 공모제 교장으로 부임한 뒤 190일 수업일수 중 출장이 120일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A교장은 교직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 잡음이 발생하는데 대해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학교 운영 전반에 비리는 물론 사심이 개입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6개월짜리 행정실 시설직 임시직원의 경우 남편 친척은 맞지만 사전에 지원사실

을 알거나 뽑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3개월짜리 임시 상담교사는 근무기간이 짧고 급여도 적어 4차 모집공고까지 내서 겨우 뽑았다는 게 A교장 주장이다.

A교장은 "2명의 계약직 직원의 급여는 최저 임금 수준, 계약 기간은 3~6개월 정도"라며 "시설직은 허드렛일을 해야 하고 상담교사는 기존 교사 출산휴가 기간 3개월 근무로 방학도 없는 자리"라고 했다. 잦은 출장과 관련해서는 "교장, 교사들은 학교에 출근해 잠시 공무로 외출하더라도 학생으로 잡힌다. 공모 교장으로 부임해 학교를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출장이 많은 것으로 이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7 달뜨기 13:09
해질 17:27 달짐 23:52

겉옷 준비하세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이 끼겠다.

광주	구름 많음	5/17	보성	구름 많음	0/16
목포	구름 많음	6/16	순천	구름 많음	6/17
여수	구름 많음	10/16	영광	구름 많음	1/16
나주	구름 많음	0/17	진도	구름 많음	4/16
완도	구름 많음	8/17	전주	구름 많음	5/16
구례	구름 많음	3/16	군산	구름 많음	5/15
강진	구름 많음	4/17	남원	구름 많음	1/15
해남	구름 많음	0/17	흑산도	구름 많음	11/16
장성	구름 많음	2/16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	동~남동	0.5
	먼바다	북동~동	0.5~1.0	동~남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먼바다(동)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먼바다(서)	북동~동	1.0~1.5	북동~동	1.0~1.5

◇ 생활지수

보통	뇌졸중
보통	감기
보통	미세먼지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0:04	11:40	06:27	19:17
여수	07:02	21:13	01:06	14:11

◇ 주간 날씨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22(목)
☁	☁	☁	☀	☀	☁	☀
7/14	8/14	5/13	6/13	2/12	3/13	2/13

고 박관현 열사 고향 영광 생가 새단장

민중화운동 전시관으로 꾸며

5·18민중화운동 당시 도청 앞 집회를 주도한 고(故) 박관현 열사의 고향인 영광에 있는 생가가 새단장 된다.

14일 영광군에 따르면 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 불갑면에 있는 박 열사의 생가를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내년 5월 초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민중화운동 전시관'으로 일반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생가에는 기념공간, 유품 전시관, 5·18 관련 자료 전시실 등이 마련된다. 박 열사

생가는 단층 주택으로 대지 면적 739㎡, 건물 연면적 112㎡ 규모다. 박 열사가 숨진 이후 비워진 상태다.

박 열사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현장학재단은 불갑면에 추모비를 세우고, 매년 추모제를 열고 있다. 모교인 전남대에는 혁명 정신 계승비도 세웠다. 영광 출신인 박 열사는 5·18 당시 도청 앞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감됐으며, 옥중에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을 벌이다 1982년 10월 옥사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광주광역시 인구가보건복지협회 | 광주전남지회

함께 하면 든든 육아 성공비법

직장는치문화 제로법

직장맘 & 대디에게 눈치 주는 대신 '배려'하는 직장문화 만들기!!

육아훈수 주의법

서툰 육아에 '훈수' 대신 '힘들지' 따뜻한 한마디 건네기!!

직장 가족 이웃

슈퍼맘 방지법

육아를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 하는 아빠되기!!

육아대디 지지법

아빠들의 육아에 '칭찬, 격려, 응원'하기!

든든육아 동참법

품앗이 육아, 아이 안전 지킴이, 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불균형개선 광주광역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가 함께 합니다